

〈사조선록 역주 4: 명사의 조선 사행록 3〉

주지번, 〈봉사조선고〉 (1606)

中 pp.239-297

- 〈봉사조선고〉 2권 〈東方和音〉
 - 유근(pp.202-280), 유영경(pp.281-285), 이호민(pp.285-297) 외 다수 조선 관원들이 주지번의 여정을 함께하며 지은 창화시 모음
- 의정부 좌찬성 (접반사) 유근 (pp.202-280 中 pp.239-280)
= 주지번 파트의 pp.90-126의 여정에 해당

고려의 고궁 터 (243)

“한 집안인 四海가 盛代를 만났으니, 평탄하고 습한 지역 따라 민풍 채집하였으면.”

벽제를 새벽에 떠나다 (247)

“御書 품고 갑자기 해동 끝에 이르렀다. / … / 동변의 再造¹에 황제의 보살핌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春臺에 즐거움이 크고 빛나리라.”

한성에서 조서를 맞아 즐겁게 춤추고 길이 막히는 것을 구경하며 (248)

“온 나라가 환호하며 漢詔를 맞이하고, 거리 메운 잡곡이 재빠르고 가지런한 시범 보인다. / 높이 떠오른 햇줄이 민첩한 다리에 걸리고, 몸 던지고 번드치며 춤추는 허리 휘돌린다.”

남쪽 별궁의 연회 (250)

“비와 이슬 같은 은택이 聖朝에서 베풀어지니, 환호하고 내달리며 신료들이 에워싼다. / 마음은 언제나 공극²하여 성의를 가리기 어려우나, 재물이 威儀³만 같지 못해 禮가 어찌 풍족할까.”

민충단을 지나며 (258)

- 이어송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나라의 은혜를 칭송
- “小邦이 비와 이슬 같은 은혜 입어, 皇威가 바다의 요사스런 기운을 깨끗이 했다. 국토는 비록 탄환이지만, 이백 년 동안이나 병변이 되었다.

1 쇠한 나라가 다시 성해짐

2 사방의 백성이 임금의 덕화에 따름

3 예법에 맞는 몸가짐

天心이 작은 나라 구휼함에 있어, 도끼를 이장군⁴에게 주었다.

...

적을 공격하니 무너지지 않는 보루가 없고, 신속하게 소탕하니 얽힌 것이 풀어졌다.

마른 가지 꺾고 썩은 나무 부러뜨리듯 쉽게, 한 번 싸워 높은 공훈 세웠다.

...

다시 태어난 삼한 사람들, 어떻게 성은에 보답할 수 있을는지.

天仙이 시를 지어 조문하니, 이 뜻 이미 부지런히 받들고 있다.

장군은 구름 속에서 전사했지만, 큰 공은 천하의 대세를 전환시켰다.”

▪ 기자의 유산

기자묘

“동국의 백성이 예의를 알게 하였으니”

평양 16경 - 정전 (262)

“여덟 조목 가르침이 동국의 백성에게 남아있고, 같은 井의 사람들이 밭을 갈며 봄 묻는다. /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다시 삼한으로 보냈으니, 마침 이제 나라 운명을 維新(유신)⁵에 맡기리라.”

▪ 고별시

長歌 (267)

“내 강가에 와서 임금의 명을 전했는데, 한 번 만남에 평생의 지기처럼 기뻐했다. / 우렁찬 종소리 같은 말씀이 우뢰처럼 울리니, 바라보면 신선 같아 가까이하기가 어려웠다. / 小邦이 환영하여 다투어 정성을 다하고, 도처에서 분주하게 노루처럼 떼지어 이르렀다.”

“산은 고상한 사람처럼 높다랗게 솟아있어, 아직도 깊이를 못 헤라리는 나를 비웃는다. / 공은 내 말 듣고 그 요점 이해해서, 용과 뱀처럼 붓이 뛰어 책 속에 시가 거뒀다.”

“공을 따라 신선되는 일을 배우려 해도, 어찌하랴 이 우물 안 개구리가 동쪽 구석에 잡혔으니.”

“사람이 태어나 멀리 헤어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패옥이 상자 안에 남아있음을 위안 삼는다.”

의주의 이별 (271)

“고상한 시편 여러 번 얻어 밝은 구슬 백 여 개나 꿰었는데, 이 아름다운 선물 모두 백벽 한 쌍보다 훌륭하다. / 평생 동안 언제나 손에 쥐고 감상할 터, 채색 무지개 길게 뻗어 맑은 창문을 꿰뚫는다.”

➤ 의정부 영의정 유영경 (pp.281-285)

= 주지번 파트의 pp.103-107의 여정에 해당

한강 (281)

“강가의 누대가 전쟁 화재로 사라졌지만”

“모시고 유람하며 은혜 물결이 멀리 있음을 느끼지 못했으니, 문득 낙랑군 있었던 때를 생각하며 웃음 짓는다.”

“모두가 皇恩 입어 외국이 따로 없으니, 이 땅을 中州보다 경시하지 않기 때문. / 하류에 남은 경치도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상류와 구분해서 안보는 풍경 남기지 마시기를.”

4 명나라의 장군 이여송;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과 한성을 수복함

5 고쳐서 새롭게 하다

➤ 영중추부사 이호민 pp.285-297
= 주지번 파트의 pp.97-109의 여정에 해당

조서를 반포하는 의례를 이루다 (285)

“... 비단이 휘황하여 태양 빛을 빼앗는다. / 문득 밝게 갠 창공 바라보니 기쁜 기운 올라가고, 이슬 맺힌 풀 돌아보니 아름다운 향기 내뿜는다. / 바다 들끓는 기쁜 한성이 깊은 골짜기 기울기고 ... / 황제 덕을 이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요사한 기운이 오래 전에 扶桑(부상)⁶에서 사라졌다.”

벽제를 새벽에 출발하다 (286)

“天使가 수레 재촉하는 뜻을 누가 알리오, 조정이 蕃邦 백성 위로함을 눈 비비고 기다린다. / 좀 보시오 은혜 맞아 禮 이룬 곳을, 서쪽 교외에 떠오르는 해가 점점 맑게 빛난다.”

남별궁의 연회 (287)

“공손하고 근실한 우리 임금은 거룩한 조정을 떠받들고, 언제나 정성 기울여 신료들을 격려한다. / 음식을 주는 것은 현명하고 신실한 이 대우하는 것일 뿐, 폐읍⁷이 풍요해서 모두 주는 것은 아니다.”

- 조선의 자부심 표현

성인 알현 (288)

“동변에 있는 우리 도를 흠잡은 적은 없었다.”

잡두봉 (291)

“강물이 중국과 다르지 않아 붉은 절벽이 많으니 ... / ... / 중원에 이만한 경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아름다운 놀이는 燕城⁸에서도 으쓱거릴 만하리라.”

- 임진왜란의 흔적

개춘정 (292)

“병란의 뒤끝이라 명문 저택도 쇠퇴함이 흑심하고”

산우루 (293)

“병란 후에 수목들이 새로 따라 우거졌고”

⁶ 해가 뜨는 동쪽 바다

⁷ 조선이 명에 대해 스스로 낮추어 자칭한 겸사

⁸ 명조의 도읍 북경 일대를 이르는 말